

# 건전한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캠페인

“  
 연구자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성과,  
 그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건전한 학술지에 출판하시기 바랍니다  
 ”



건전한 학술 생태계 구축,  
 한국연구재단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실의심 학술지 출판은 좋은 연구를 사장시키고,  
 빈약한 연구를 확산시켜 학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자분들께서는  
 부실의심 학술지 점검 운동인  
 Think, Check, Submit를 통해 스스로 투고할  
 학술지를 사전에 점검해주시고,  
 부실의심 학술지 리스트를 참고하여  
 학술지를 신중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실의심학술지 특징

- 1 엄격한 Peer Review 없이 높은 게재료로 신속하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2 저명한 과학자가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것처럼 가장한다.
- 3 다양한 방식으로 높여진 사기성 영향력 지수(IF)를 내세운다.
- 4 학술지명(타이틀)이 전통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술지와 유사하다.
- 5 해당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한다.

※ 출처 : Inter-academy partnership (IAP) (2022),  
 Combatting predatory journals and conferences.

## 건전한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캠페인 콘텐츠



### 동영상

사라진 연구원 A씨는 어디에?  
 (한국연구재단 Youtube / 연구윤리교육포털 lms.cre.re.kr)

### 교육자료

「부실의심 또는 약탈적 학술지 이용 예방」  
 (연구윤리정보포털, cre.re.kr 가이드라인)

### 예방안내문

부실의심학술지 예방안내문  
 (연구윤리정보포털, cre.re.kr 공지사항)